

# 잿빛 아스팔트 위의 '녹색 감동'... 남도의 길이 바뀐다



전남도 '친환경 녹색도로' 추진

'크고 작은 나무의 사열을 받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눈높이에 맞춘 나무 용벽으로 탁 트인 조망이 되살아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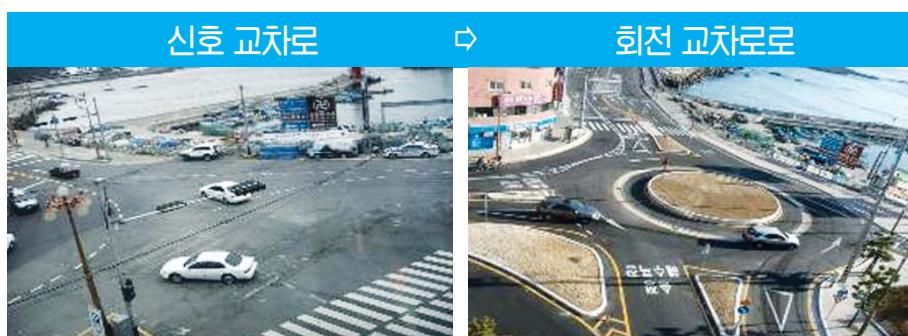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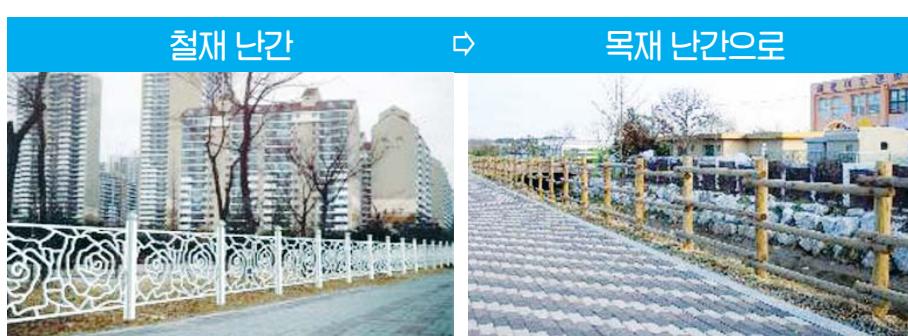
전남 길이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불편없는 짯빛 가드레일이 서 있는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즐비한 화단이 만들어져 숲길 속을 드라이브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지는가 하면, 흥물스럽게 늘어선 회색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 용벽에 사계절 푸른 잔디가 심어지는 등 짯빛 도로가 녹색 으로 바뀐 예정이다.

◇ 짯빛 도로→녹색 도로로=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차량 통행' 측면이 강조된 기존 도로들을 '자연경관 감상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녹색도로'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잿빛 아스팔트를 무감동하게 질주하는 삽막한 도로환경 대신, 운전자가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도로환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우선, 겉모습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어 온 기존 중앙분리대와 방음시설, 폐쇄형 가드레일 등을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도로 인밖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녹지형 분리대(중앙분리대 대신 화단·녹지 조성), 목재 형 방음벽, 방음립, 봉형 가드레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의 경우 도로 설계단계부터 활엽수가 아닌 상록수 위주로 식재해 페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는 복안이다. 도심 주요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 보호덮개를 제거하고 채송화 및 잔디 등을 심는 계획도 마련했다. 길을 오가는 지역민 사이에서 "숲길 속을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전거·보행자도로, 관광지 등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위험이 적은 지역의 경우 목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주변에 가로수와 꽃밭 등을 조성해 '달리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페적한 경관 조성·안전에 초점

보행자와 자전거, 농기계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면 차도와 분리되는 별도의 통행로를 조성하고 화단을 설치, 가로수 등을 식재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눈을 치우치게 만드는 콘크리트 용벽, 불풀 없는 시멘트 블록, 철재 난간 등도 확 바뀐다는 방침이다. 도로 건설과정에서 훼손된 비탈면은 용벽 대신 운전자 눈 높이에 맞춘 목재 축대벽(높이 1m~3m)으로 바꾸고 사계절 푸른 잔디를 심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폐쇄된 가드레일은 개방형 가드레일을 설치해 도로 외부 조망권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영산강변 도로나 해안도로 등 전망이 좋은 구간에는 전망대와 주차장 등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연환경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회전 교차로 확대=전남도는 이밖에 회전교차로 도입을

## 회전교차로 늘려 사고위험 감소

적극 추진키로 했다. 회전교차로는 내부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통과 차량이 회전하는 교차로다. 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뒤 진입해야 하는 만큼 사고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회전교차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선반경을 최대한 완화하거나 직선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터널에 라디오 수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주요 교차점이나 인터체인지(IC) 입구에 태양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녹색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페적한 녹색 경관도로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22개 시·군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전승현 건설방재국장은 "도내 도로를 자연형으로 재정비, 자연스럽고 친근한 환경은 외국 대도시의 강에 비해 폭이 너무 넓어 황량하고 위압적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자연형으로 재정비,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현

&lt;전남도 건설방재국장&gt;

## 기고

### 한국인의 고향 남도에 녹색 경관도로를...

장을 또한 71%로 전국 평균 7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우리 전남에도 내륙 연결 도로망이 구축되어지고 있고 서남해안 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방향은 도로사업비 축소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약 450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여수단진입도로, 나주혁신도시 연결도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을 주진하고 있다.

도로는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잘 갖추어진 도로망은 원활한 물류 수송이 가능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경제발전에 힘입어 자동차대수가 1970년 대 약 12만대에서 현재 1700만대를 넘어서고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실시로 인해 도시주변 도로는 특히 주말에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평일에도 주요 연결구간은 마찬가지 실정이다.

전남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국도 등 국

가간교통망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도 연결체계를 강화하여 도내 어느 곳에서나 고속교통망 진입 30분 이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도 사업은 차량통행 위주의 기능성 측면에서 보행자, 자전거 및 농기계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친자연 녹색 경관도로'화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도와 보행자도로 분리, 화단분리대 설치 및 가로수 식재로 보다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재 및 지역생산 제품 사용도 적극 확대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친자연 녹색 경관도로'계획이 중앙정부 사업 및 시군도 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고향은 '남도'이니 전남을 찾는 사람들이 'Green Grass of Home'을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정다운 길을 친근하게 나갈 것이다.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원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고가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을 찾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신선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틈 9실, 대형주차장 원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